

벤츠, 전기차 가속페달

2025년부터 신차 모두 전기차
기존 모델도 옵션 추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 완료



메르세데스-벤츠가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만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벤츠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 모델 더 뉴 EQS. (메르세데스-벤츠 제공)

메르세데스-벤츠가 2025년부터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만 출시한다. 2022년까지 모든 세그먼트에 순수 전기차를 보유하고, 2030년까지 전체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6일 메르세데스-벤츠에 따르면 벤츠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전동화 전략에 따라 2025년부터 신모델은 모두 전기차로 출시된다. 기존 모델에도 전기차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는 2025년부터 'MB.EA', 'AMG.EA', 'VAN.EA' 등 총 3가지 종류의 순수 전기차 아키텍처(플랫폼)를 활용해 신차를 출시한다. 이들은 각각 중대형 승용차, 고성능 브랜드 AMG 차량, 화물차와 상용차의 전기차 플랫폼이다.

벤츠는 또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 계획도 밝혔다.

전기차 채택의 전환점과 포트폴리오 계획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부문에 4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아키텍처 개발,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 새로운 충전 시스템 및 최대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생산 네트워크 확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파워트레인 계획, 개발, 구매 및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재구성해 제조 및 개발의 통합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기 구동 기술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 단계는 영국의 전기 모터 제조사 야사(YASA)의 인수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초고성능 전기 모터 개발에 전문성을 가져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벤츠는 20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세계 협력사와 함께 8개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설립에도 나선다.

차세대 배터리는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어 벤츠 전체 승용차와 화물차 라인업 90% 이상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유럽 전역의 파트너

들과 협력하여 미래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벤츠는 기존 파워트레인 생산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의 새로운 충전 표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말 전기차 EQS 출시에 맞춰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플러그 앤 차지는 고객이 별도의 요금 지불 단계 없이 충전 플러그를 차에 꽂으면 충전과 요금 결제까지 완료되는 충전 서비스다.

벤츠는 현재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 '비전 EQXX'를 개발 중이

며 내년 중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비전 EQXX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 발전은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 개발에 활용한다.

또 벤츠가 운영하는 전 승용차 및 배터리 조립 현장은 내년까지 탄소 중립 시설로 전환한다. 제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배터리 생산 및 자동화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독일 기업 'GROB'와 협력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3년 독일에 문을 열 예정인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르노삼성 LPG SUV QM6 LPe 6만대 돌파

르노삼성은 국내 유일의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 LPe가 출시 2년여만에 누적 출고 6만대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르노삼성에 따르면 2019년 6월 첫선을 보인 QM6 LPe는 지난달까지 총 5만9334대가 판매됐으며 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총 판매 대수가 6만대를 넘어섰다.

QM6 LPe 구매 고객 중 약 40%가 최상위 트림(등급)인 RE 시그니처와 고급 라인인 프리미에르 모델을 선택하는 등 고급형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다.

택시 전용 모델이 없음에도 QM6 LPe 택시가 계속 증가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넉넉한 2열 공간과 일반 SUV 수준의 트렁크 공간(기본 562 l, 2열 시트 폴딩시 1576 l)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르노삼성은 전했다.

QM6 LPe는 스페어타이어가 위치하던 트렁크 바닥 하단에 LPG 도넛탱크를 탑재해 기존 LPG 차량의 단점인 협소한 트렁크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특히받은 도넛탱크 고정기술로 후방 충돌 사고 시 2열 탑승자의 안전도 최대한 확보했다.

3세대 LPLi 방식 엔진으로 주행 성능은 물론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도 해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KR10' 디자인 공개

쌍용차는 26일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KR10' (프로젝트명)의 디자인 스케치를 선보였다. 이번 디자인 스케치 공개는 지난달 중형 SUV 'J100' (프로젝트명)에 이어 두 번째다.

쌍용차는 새 디자인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코란도-무쏘에서 이어지는 강인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SUV 정통 브랜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 디자인 철학은 단순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탈피한 구조적 강인함과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구현한 예상 밖의 기쁨, 색감과 질감 등의 강렬한 대비, 자연과의 교감 등 4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쌍용차는 새로 선보일 J100과 KR10 등 향후 출시될 모델에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탑재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신형 아반떼 누적 판매 40만대 눈앞

고성능 모델 N 앞세워 반등 속도

현대차의 대표 모델인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신형 모델의 누적 판매 40만대를 목전에 두는 등 최근 수년간 이어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형 모델이 선전할 가운데 최근 고성능 모델 N 출시로 판매 반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작년 4월 국내에 출시된 신형 아반떼는 7세대 모델로, 올해 상반기까지 15개월간 국내외 시장에서 총 38만8278대(국내 11만7607대, 수출 11만1434대, 해외공장 판매 15만9237대)를 판매하며 누적 판매 4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차가 출시돼 초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파워트레인 등을 토대로 작년에만 총 7만7385대가 팔렸다. 월평균 약 8000대 수준이다.

이는 아반떼가 큰 인기를 끌던 2010년대 초반 월 1만대 이상 판매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준중형차의 입지가 흔들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전한 셈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에서 4만222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신차 효과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해외 판매가 힘을 내고 있다. 작년엔 총 4만8712대가 수출됐고 중국 공장에서 4만2331대, 미국 공장에서 2만839대가 판매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총 11만1882대가 판매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6만2722대, 중국공장 판매 6만2650대, 미국공장 판매 3만3417대 등 총 15만8789대가 해외에서 판매됐다.

신형 아반떼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19만9011대가 팔려 이달 중 20만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N'. 아반떼 N은 지난해 4월 출시한 '올 뉴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이다. (현대차 제공)

1990년 1세대 모델이 나온 아반떼는 2014년 10월 국내 단일 차종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440만대로 현 판매 추세라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께 15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하반기 고성능 모델인 N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반떼 N은 최고출력 280마력(ps), 최대토크 4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고 N 그린 슈프트(NGS)를 작동하면 최대 290마력까지 출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단 5.3초만에 가능하다. /연합뉴스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다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